

헤론의 생애와 내한 과정에 대한 고찰*

박 형 우**

- I. 머리말
- II. 헤론의 집안 배경
 - 1. 헤론의 집안
 - 2. 에버니저의 목회 활동
 - 3. 조지 스미스 사건
 - 4. 빙리 회중과의 갈등
 - 5. 테네시 주 녹스빌
- III. 헤론의 교육 배경
 - 1. 영국에서의 교육
 - 2. 메리빌대학
 - 3. 테네시대학교 의학부
- IV. 헤론의 선교사 임명 과정
 - 1. 헤론의 선교사 지원과 철회
 - 2. 헌터와 리드의 한국행 자원
 - 3. 맥윌리엄스의 기부와 헤론의 선교사 임명
 - 4. 뉴욕 의학대학원 연수
 - 5. 해리엇과의 결혼과 한국행
- V. 맺음말

I. 머리말

1884년 9월에 내한한 개신교의 첫 정주 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 安連, 1858~1932)은 갑신정변의 와중에 칼에 찔려 사경을 헤매던 민영

*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14년도 일반교수연구비(6-2014-0128)에 의해 이루어졌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동은의학박물관 관장

익(閔泳翊, 1860~1914)을 치료하여 그의 생명을 구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885년 4월 10일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이 개원되었다. 제중원은 병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던 기독교 전래의 주요 거점이었다.

제중원의 개원 직전에 내한한 미국 북장로회의 목회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元杜尤, 1859~1916)는 제중원을 근거지로 삼아 본격적인 선교를 준비하였으며, 6월에는 또 다른 의료 선교사 헤론(John W. Heron, 惠論, 1856~1890)이 합류하였다. 제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1886년 3월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학교육기관인 제중원의학교가 개교하였고, 알렌, 언더우드 및 헤론이 의학교육에 참여하였다. 7월에는 엘러스(Annie J. Ellers, 1860~1938)가 내한하여 제중원에 부녀과가 설치됨으로써 의료와 교육을 앞세운 미국 북장로회의 선교가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기독교 전래 초기에 의료 선교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으며, 아직 공개적인 전도가 금지되어 있던 당시, 미국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는 의료 선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알렌은 당초 한국으로 파송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1883년 10월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지만, 부인의 건강 악화 등으로 중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미국 북장로회에 의해 1884년 9월 임지가 한국으로 변경되었다.¹⁾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에서 한국에 파송할 선교사로 가장 먼저 임명한 것은 바로 헤론이었다. 하지만 헤론은 선교사로 임명된 지 1년이 지난 1885년 6월에 내한하였고, 1887년 9월 알렌이 주미 한국 공사관 개설을 돕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자 제중원의 책임을 맡아 활동했다. 헤론은 안타깝게도 이질에 걸려 1890년 7월에 타계하여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처음으로 묻혔다. 헤론이 활동했던 5년여 동안의 기간은 한국 기독교 전래 및 서양의학 도입의 초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헤론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의 직접적인 전래 및

1) 박형우, “알렌의 의료 선교사 지원과 내한 배경,” 「한국기독교와 역사」제 40호(2014. 3), 193-220.

초기 서양 의학의 도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해 헤론에 관해서는 극히 단편적인 사실 이외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²⁾ 한국에서 활동했던 기간이 너무 짧았던 탓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자료가 미국이나 영국 등에 산재해 있어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개신교 도입사를 처음으로 연구한 백낙준(白樂俊, 1895~1985)은 『한국개신교사 1832~1910』에서 헤론의 임명과 내한에 대해 지극히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의술이 훌륭하고 헌신적 정신을 가진 젊은 의사” 존 W 헤론(John W. Heron)이 한국에 가기를 자원하여 왔으므로 1884년 봄에 최초의 장로교파 한국선교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선교본부는 “한국에서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짐작되어, 헤론에게 우선 일본으로 가서 한국 말을 배우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는 1885년 6월에 가사야 일터에 들어왔다.³⁾

한편 헤론과 교분이 깊었던 기포드(Daniel L. Gifford)는 1897년 *The Korean Repository*에 그를 추모하는 글을 발표했는데, 헤론에 관한 최초의 글이라 볼 수 있다.⁴⁾ 백낙준이 인용하지 않은 이 글은 자신이 만났던 헤론에 대한 인상과 함께, 현재 헤론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헤론이 졸업한 메리빌대학에서 간행된 잡지에 실린 글이 있다.⁵⁾ 이 글의 필자는 헤론을 기억하는 졸업생의 회고와 함께, 헤론이 한국에서 벌였던 활동 및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루고 있다.

2) Daniel L. Gifford, “John W. Heron, M. D.,” *The Korean Repository* 4(1897), 441-443; 김동건·김태수, “제중원 2대 원장 헤론(John W. Heron, M. D.)의 생애,” 『의사학』9(2000), 205-211.

3)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백낙준 전집 1(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89. 이 책은 백낙준의 예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인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4) Daniel L. Gifford, “John W. Heron, M. D.,” *The Korean Repository* 4(1897), 441-443.

5) T. H. McConnell, “John W. Herron, M. D., Missionary,” *Maryville College Monthly* 2(6)(March 1900), 100-102.

이후 헤론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처음 시도한 것은 김동건과 김태수(2000)라 할 수 있다.⁶⁾ 이전의 글들에 비해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헤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점이 눈에 띄지만, 인용문헌이 모두 2차 사료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다만 인용문헌 중에서 *The Medical Missionary Record*에 실린 헤론에 대한 추모 기사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 문헌은 미국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희귀본으로서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⁷⁾

2000년대에 들어, 주로 미국의 장로회 역사협회(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에 소장되어 있는 1차 자료들의 일부가 자료집의 형태로 출판되었다.⁸⁾ 이 중에는 헤론과 관련된 교신들을 모은 자료집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자료집에는 빠진 편지들이 너무 많고, 선교사 지원 이전과 관련된 것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⁹⁾

이와 같이 기독교 전래 및 한국 서양의학 도입에서 헤론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은 실정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 알려진 단편 자료들이 계속 재인용되고 있을 뿐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미국 장로회 역사협회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1차 사료,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총인구조사, 신문 기사, 헤론 부친과 관련된 글, 헤론이 다녔던 메리빌대학 및 테네시의과대학과 관련된 자료 등 아직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여러 사료들을 이용하여 헤론

6) 김동건·김태수, “제중원 2대 원장 헤론(John W. Heron, M. D.)의 생애,” 『의사학』9(2000), 205-211.

7) 본 연구자는 이 문헌을 구하기 위해 김태수 교수에게 문의했지만 구하지 못하였고, 여러 경로로 수소문한 끝에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을 통해 마이크로필름 복사본을 구할 수 있었다. NLM Film Number S10055, 『The Medical Missionary Record』V. 1~9, May 1886~Dec. 1894; Film Number S10055, Film Number W1 DO862, 『The Double Cross and Medical Missionary Record』V. 10~15, Jan. 1895~Dec. 1900.

8) 이만열·옥성득, 『언더우드 자료집 I-V』(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2010); 알렌, 김인수 옮김,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 편지(1884~1905)』(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한국교회사연구원, 2007); 옥성득, 『마포삼일서한집 제1권 1868~1894』(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9) 헤론, 김인수 옮김, 『헤론 의사의 선교 편지(1885~1890)』(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한국교회사연구원, 2007).

의 집안 배경 및 내한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본문의 내용은 헤론의 집안 배경, 교육 배경, 그리고 선교사 임명 과정으로 나누었으며, 마지막으로 헤론의 내한 과정에서 중요한 점을 요약 분석하였다.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다 소천한 헤론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한국교회 발전사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헤론의 집안 배경

1. 헤론의 집안

영국 회중교회 목사 출신으로, 미국 장로교회 목사였던 부친 에버니저(Ebenezer Sloane Heron)는 1852년 말, 신앙심이 깊은 엘리자베스 에어턴(Elizabeth Ayrton, 1823~?)과 결혼했다.¹⁰⁾ 존 헤론은 2남 2녀 중 장남으로 1856년 6월 15일 영국 더비셔 주 일크스톤(Ilkeston, Derbyshire)에서 태어났다. 존에 이어 1857년 여동생 제시(Jessie C.), 1859년 남동생 데이비드(David A.), 그리고 1861년 엘리자베스(Elizabeth A.)가 모두 일크스톤에서 태어났다.¹¹⁾

헤론의 부친 에버니저는 1814년 5월 15일 스코틀랜드 커쿠브리 주의 파튼(Parton, Kirkcudbright)에서 제임스(James Heron)와 아그네스(Agnes Sloan) 사이의 4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으며, 생후 10일 만에 유아세례를 받았다.¹²⁾ 그의 동생들도 모두 태어난 직후 유아세례를 받은

10) 요크셔 주 헬리팩스에서 출생한 에어턴은 어려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외과 의사 코리(Joseph Corrie)의 양녀로 입적되었다. 1841 England Census (June 6th, 1841, Elizabeth Ayrton); 1851 England Census (Mar. 30th, 1851, Elizabeth Ayrton).

11)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장로교회의 목사가 되었는데, 1900년대에 오하이오 주에서 활동했다. 그는 헤론이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1886년 수전(Susan)과 결혼하여 5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1919년 4월 8일 오하이오 주 웨인에서 사망하였다. 190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 (David Heron, June 12th, 1900); Ohio, Death, 1908~1932, 1938~2007 (Apr. 8, 1919, David A. Heron).

것으로 보아 에버니저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2. 에버니저의 목회 활동

에버니저는 정규의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29세이던 1843년부터 1848년까지 영국 북서부에 위치한 랭커셔 주 리밍턴(Rimington, Lancashire)의 데일스 회중교회의 목사로 시무했던 일이다.¹³⁾ 1843년 부임한 그는 1844년 5월 19일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당시 신도 수는 100명 남짓이었다. 그가 시무하던 5년 동안 신도는 30명이 늘어나 교회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에버니저는 요크셔 주 덴홀름(Denholme, Yorkshire) 독립교회의 초청을 받아 1848년 11월부터 시무했다. 그리고 1856년 1월에는 더비셔 주 일크스톤의 핼리코(Pimlico, Ilkeston) 회중교회로 적을 옮겼다. 그가 떠난 덴홀름의 독립교회는 신도 수가 줄어들면서 한 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 핼리코의 회중교회는 시무한지 3년 만에 주일학교 학생이 4배로, 신도 수가 2배로 증가하였다.¹⁴⁾ 이는 에버니저가 교회의 부흥에 상당한 능력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1851년 당시 인구가 6천명이 넘었던 일크스톤에서 에버니저는 지역 사회의 유지로서 다양한 활동을 벌였는데, 1856년 2월 일크스톤 기술학교(Ilkeston Mechanics' Institute)에서 가졌던 “지식의 습득”이란 제목의 강연이 관중의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¹⁵⁾

일크스톤에서 시무하던 에버니저는 ‘전도의 열망이 확고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는 욕망으로 충만되어 있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해 타고난 동정심과 선함이 충만함으로 그는 많은 사람

12) Scotland, Select Births and Baptisms, 1564~1950.

13) Excerpts from Thomas Whitehead, *The History of the Dales Congregational Churches*, 1930.

14) Independent Chapel, Ilkeston, *The Derby Mercury*(Derby, England) (February 13, 1856, Wed.).

15) Ilkeston Mechanics' Institute, *The Derby Mercury*(Derby, England) (February 13, 1856, Wed.).

들로부터 널리 존경받고 있으며, 그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⁶⁾

3. 조지 스미스 사건

7년 동안 일크스톤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에버니저에게 의미 있었던 일 중의 하나는 바로 조지 스미스(George Clay Smith) 사건이었다.¹⁷⁾ 조지는 마을에서 작은 신발 가게를 운영하던 조셉 스미스의 장남이었는데, 1861년 5월 2일 부친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7월 29일에 열린 공판에서 조지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지만, 교도소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을 자백하였고 교수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패륜아가 부친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감리교회에 다녔던 조지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참회하는데 있어 회중교회 목사 에버니저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조지는 옥중에서 자신이 다녔던 감리교회에 학생들이 음주, 주일 탈선, 흡연, 무도회 참석, 도미노 놀이 등에 관계하지 말도록 경고를 요청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교수형 집행 전날인 8월 15일, 조지는 에버니저 목사와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다음 날 수만 명의 구경꾼이 모인 가운데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에버니저는 8월 25일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조지의 슬픈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당시 화제였던 조지와 에버니저의 관계에 주목한 대중들이 몰려 수백 명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였다. 조지가 일반 대중에게 계속 회자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 사건은 에버니저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지도자로 주목 받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16) Excerpts from “A profile of early/mid-Victorian Ilkeston and its people,” [<http://www.oldilkeston.co.uk>]

17) The Rev. E. S. Heron and the Ilkeston Parricide. *The Derby Mercury*(Derby, England) (September 4, 1861, Wed.); Excerpts from “A profile of early/mid-Victorian Ilkeston and its people,” [<http://www.oldilkeston.co.uk>]

4. 빙리 회중과의 갈등

에버니저는 1861년 11월 요크셔 주 빙리(Bingley, Yorkshire)의 교회 및 회중으로부터 만장일치로 초청을 받아 적을 옮겼다. 부임할 당시 빙리의 회중은 교회에 냉담하고 있던 상태였다. 에버니저는 1882년 11월 19일, 1662년 8월 22일의 비국교도 대추방 2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학교 건물을 교회 뒤편에 신축하는 등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빙리에서도 에버니저는 빙리기술학교(Bingley Mechanics' Institute)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주일에는 모든 공공건물을 닫게 해야 한다는 청원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도자로서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¹⁸⁾

그런데 1864년에 들어 빙리에서 남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코팅글리(Cottingley)에 공회당이 들어서자 빙리교회에 출석하던 많은 신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에버니저와 교회 신도들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고, 결국 일시적으로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었다.¹⁹⁾ 두 교회는 1865년 11월부터 1867년까지 9종의 팸플릿을 통해 서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규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에버니저가 퇴출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더 이상 빙리에서 목회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에버니저를 위해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성금을 모금해 주었고, 에버니저는 미국 테네시 주의 녹스빌(Knoxville, Tennessee)에 농장을 구입하였다.

5. 테네시 주 녹스빌

에버니저는 아내 및 4명의 자녀와 함께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향

18) Bingley Mechanics's Institute. *The Leeds Mercury*(Leeds, England) (October 29, 1862, Wed.); The Sunday Closing Bill.- Meeting at Bingley. *The Leeds Mercury*(Leeds, England) (May 30, 1863, Sat.).

19) J. Horsfall Turner, *Ancient Bingley, or Bingley, its History and Scenery* (Thomas Harrison and Sons, Yorks, 1897), 161-163.

에서 증기선 오스트레일리아 호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 1870년 5월 6일 뉴욕의 캐슬 가든에 도착하였다.²⁰⁾ 그리고 농장이 마련되어 있는 테네시 주 녹스빌의 스프링 그로브(Spring Grove)에 정착하였다. 스프링 그로브는 녹스빌에서 동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로브샷강(Love's Creek)에서 제공되는 전력으로 증기 제재소와 소면기(carding machine)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루터교회, 장로교회 및 연합교회 등 3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에버니저는 장로교회에서 시무하였다.²¹⁾

녹스빌에 정착한 지 1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7월 1일 에버니저는 월넛 그로브 아카데미(Walnut Grove Academy)에서 열린 새 건물 신축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였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버니저는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²⁾ 이날 그가 했던 연설의 내용은 '실용 교육(practical education)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에버니저는 메리빌대학의 이사로 한 동안 활동했으며, 헤론이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고 알렌에 이어 제중원의 책임을 맡은 직후인 1887년 12월 소천하였다.

III. 헤론의 교육 배경

1. 영국에서의 교육

헤론은 빙리로 이사할 때 5살, 떠날 때 14살이었으므로 초등 교육을 이곳에서 받았다. 그의 초등 교육에 관해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자

20) New York Passenger Lists, 1820~1957(May 6th, 1870, S. S. Australia, Rev. E. Heron).

21) 이 교회는 현재 스프링 플레이스 장로교회(Spring Place Presbyterian Church, 2000 Loves Creek Rd., Knoxville, TN 37924)이다. *Tennessee State Gazetteer and Business Directory for 1876~1877*(Nashville: R. L. Polk & Co., Publishers, 1876), 368-369.

22) Walnut Grove Academy, *Knoxville Daily Chronicle*(July 11, 1871), 4.

료는 없지만, 미국으로 떠나기 전 몇 년 동안 목사의 자녀들이 다니는 훌륭한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²³⁾ 헤론이 다닌 학교는 1862년 에버니저가 교회에 설립한 학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학교에는 수 명의 교사가 교육에 참여했는데, 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메리빌대학

헤론이 녹스빌에서 받은 대학 이전 교육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헤론은 15살이던 1871년 12월 17일 에버니저가 시무하는 작은 교회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 헤론은 부친이 목사인 것에 자부심을 가졌고, 일반적으로 목사의 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통설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²⁴⁾

헤론은 1874년 1월 메리빌의 메리빌대학(Maryville College)의 예비과(Preparatory Department)에 입학하였다.²⁵⁾ 1819년에 아이작 앤더슨(Issac Anderson) 목사에 의해 설립된 메리빌대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기독교 교과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특정 교과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기숙사를 이용하는데, 금연 서약을 해야 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지 못하며, 교수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휴학하지 못하고 규율을 10번 이상 어기면 제적당하는 등 규율이 상당히 엄격했다.

1874년 헤론이 입학할 당시 메리빌대학에는 대학과(Collegiate Department)에 25명, 예비과에 24명, 여성과에 22명, 그리고 영어 과정에 6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헤론이 다니던 예비과는 3년 과정으로 동급생은 모두 11명이었다. 교육 과정은 당시 미국의 다른 대

23) "John William Heron, M. D.," *The Medical Missionary Record* 5(1890), 225.

24) Daniel L. Gifford, "John W. Heron, M. D.," *The Korean Repository* 4(1897), 441-443.

25) *Catalogue of the Officers and Students of Maryville College, East Tennessee, For the Academic Year 1873~1874*(Knoxville, Tenn.: O. B. Smith & Co., Booksellers And Publishers, 1874)

학에서와 유사하게 1학년 때에는 라틴어 문법과 독해, 산수, 지리, 영문법, 고대 역사, 2학년 때에는 시저, 희랍어, 대수, 미국 역사, 키케로 연설, 희랍문법, 그리고 3학년 때에는 버질, 희랍독해, 로마 역사, 대수, 고대 지리, 살루스티우스, 기하학 등이었다.

헤론은 남학생들의 기숙사인 메모리얼 홀의 남동쪽 모퉁이 2층 방을 사용했으며, 그의 룸메이트는 후에 변호사가 되었다. 메리빌대학에 재학 중이던 헤론은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밝고 즐거운 성격의 학생’으로,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²⁶⁾

당시 메리빌대학은 “선교사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졸업생들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특히 극동 지역이 많았다. 헤론이 후에 한국 선교사로 자원하게 된 것도 메리빌대학의 이러한 전통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헤론의 친구인 대학과의 포터(James B. Porter)와 알렉산더(Thomas Theron Alexander)는 일본으로 파송되었다.²⁷⁾ 헤론은 메리빌대학의 바트렛트(P. M. Bartlett) 학장과 희랍어 교수 라마(T. J. Lamar)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헤론이 메리빌대학에 입학하던 1874년부터 헤론의 부친 에버니저가 이 학교의 재단이사로서 활동했던 점이다.

헤론은 3년 과정 중에서 1년 반의 과정만을 마치고 녹스빌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동생 데이비드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자신의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²⁸⁾ 헤론은 1876년경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친과 자신의 소원이었던 의사가 되기 위한 학비를 벌기 위해 5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1880년 6월 실시된 미국의 총인구조사에서 헤론의 직업이 교사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²⁹⁾ 당시 총인구조사는 조사 당일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하게 되어 있었기에 헤론은 아마도 인근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다.

26) T. H. McConnell, “John W. Herron, M. D., Missionary,” *Maryville College Monthly* 2(6)(March 1900), 100-102.

27) 포터는 1880년부터 1900년까지 활동했으며, 알렉산더는 1877년부터 활동하다가 1902년 사망하였다.

28) “John William Heron, M. D.,” *The Medical Missionary Record* 5(1890), 225.

29) 188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June 14th, 1880, Ebenezer A. Heron).

3. 테네시대학교 의학부

1880년 경 헤론은 한 의사의 지도 아래 1년 동안 의학의 예비 과정을 끝내고 1881년 내쉬빌의 테네시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하였다.³⁰⁾ 당시 미국에는 수많은 의과대학이 난립해 있었는데, 충실한 의학 교육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다른 의과대학과 수준을 맞추고 충실한 의학 교육을 하기 위해 미국의과대학협의회(American Medical College Association)를 조직했다. 이 협의회는 규칙을 정해 각 학교가 이에 따르도록 했으므로 이 협회에 가맹한 학교들은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인정할 수 있었다. 헤론이 입학한 테네시대학교 의학부는 1875년에 개교한 신설 학교였지만, 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었다.

헤론의 첫 해 의학 수업은 1881년 9월 6일 시작하여 1882년 2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당시 개설된 강좌는 해부학 및 성병학, 화학 및 독성학, 생리학, 약물학 및 치료학, 내과학, 외과학, 산과학, 부인과학, 안이비인후과학, 예방의학, 의학윤리, 구강외과, 임상해부학 등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었다.³¹⁾

당시 테네시대학교 의학부는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지원자의 나이가 21세가 넘어야 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2) 3년 동안 의학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중 2년은 강의의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특히 마지막 해는 테네시대학교 의학부에서 이수해야 한다. 다만 첫 해 과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과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다. 3) 의학부에 적을 두고 있는 동안 해부 실습에 참석해야 한다. 4) 교수에 의한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5) 모든 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30) 이 학교는 1876년 내쉬빌 의과대학(Nashville Medical College)이란 이름으로 개교했으며, 1879년 테네시대학교 의학부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11년 멤피스로 이전한 후 그곳의 의과대학(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과 합동하여 테네시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다.

31) *Announcement of the Spring and Special Course of Instruction 1881, of the Medical Department University of Tennessee, Nashville Medical College.*

당시 의학부의 총 등록생은 대략 100명이었고, 이 중 반인 50명 정도가 매년 졸업하였다. 헤론은 의학부에 재학하면서 한때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지만,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그리하여 1883년 졸업시험에서 내과, 약물학, 산과, 임상 진단학에서 1등을 차지해 5개의 금메달 중에서 4개를 받았으며, 모든 과목을 합쳐서도 1등을 차지해 교수회가 주는 금메달을 받았다. 수석으로 졸업한 것이다.³²⁾ 이러한 그의 졸업 성적은 의학부 개교 사상 가장 좋은 것이었다.

IV. 헤론의 선교사 임명 과정

1. 헤론의 선교사 지원과 철회

1883년 2월 의학부를 졸업한 헤론은 테네시 동부에 위치한 존스보로(Jonesboro)의 개업의사 김슨(David J. Gibson, 1822~1889)에게 합류하였다. 이후 헤론은 약 18개월 동안 존스보로 장로교회에 출석하며 담임 목사 덩컨(C. A. Duncan)의 집에서 하숙했는데, 기도 모임 및 여러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한 결과 1883년 12월에 집사로 선출됐다.³³⁾

그런데 헤론이 해외선교사로 임명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헤론 자신도 확고한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존스보로에 정착한 직후인 1883년 5월 2일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 총무 엘린우드(Frank F. Ellinwood)에게 자신이 의료 선교사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혹시 어느 곳이든 해외 선교지에서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습니까? 만일 그러한 요청이 있고 총무께서 누구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제게 그것에 대한 정보와 의료 선교사로서 선교본부가 요구하는 것이

32) G. S. W. Crawford(Maryville College),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July 5th, 1884). PHS RG 31 43-13, #76.

33) 존스보로 장로교회(Jonesborough Presbyterian Church)의 현주소는 128 W. Main St., Jonesborough, TN 37659이다.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³⁴⁾

헤론의 선교사 자원과 관련해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점이 있다.

첫째, 헤론이 의료 선교사로 자원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일까? 그것은 헤론이 존스보로에 정착한 직후 만난 리아(Sarah J. Rhea, 1835~1918) 부인이었다. 그녀는 ‘페르시아의 테네시 인’이라 불리는 사무엘(Samuel A. Rhea, 1827~1865)과 함께 1860년부터 페르시아에서 전도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1865년 남편이 사망하자 그녀는 1867년 귀국하여 미국 북장로회 부인외국선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헤론에게 해외 선교 사역에서 의사에 대한 요청이 많다고 주지시켜 주었고, 헤론은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어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리아와 함께 대학 YMCA의 총무인 위샤드(L. D. Wishard)도 헤론이 의료 선교사로 나서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⁵⁾

둘째, 존스보로는 남장로교회에 속하는 지역이었는데, 헤론은 왜 남장로교회에 지원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남북전쟁에서 남군이 패한 후 분리 독립된 남장로교회는 당시 해외선교에 적극 나서지 않았고, 또한 위에 언급한 리아가 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였던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위의 편지에서 보이듯이 헤론의 편지는 지원서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서 정도에 불과했다.

이 편지에 대해 엘린우드는 당시 의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없다는 답을 보냈다.³⁶⁾ 그리고 메리빌대학의 바틀렛 학장 및 라마 교수와 면담한 후, 6월 30일 헤론에게 해외 선교에 나서게 된 동기 및 목표, 나이, 건강에 관해 간단한 설명이 담긴 정식 지원서를 보내되, 의과 대학 교수 한 명 이상의 추천서, 교회 목사의 편지, 그리고 건강 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요청하였다.³⁷⁾ 아마도 두 사람이 헤론을 적극 추

34) John W. Heron(Jonesboro, Tenn.), Letter to Frank F. Ellinwood(May 2nd, 1883). PHS RG 31 36-11, #156.

35) “John William Heron, M. D.,” *The Medical Missionary Record* 5(1890), 225.

36) Frank F. Ellinwood, Letter to John W. Heron(Jonesboro, Tenn.) (June 30th, 1883). PHS RG 31 44-13, #201; John W. Heron(Jonesboro, Tenn.), Letter to Frank F. Ellinwood(Mar. 15th, 1884). PHS RG 31 43-13, #53~4.

천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헤론은 9월에 가서야 엘린우드에게 답장을 보내 “처음 편지를 보낼 때는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외국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막상 6월 30일자 편지를 받았을 때 자신이 아직 의료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했다.³⁸⁾ 헤론은 다시 곰곰이 생각해 의료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한 후 부친께 말씀드리고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부친은 곧 여동생이 집을 떠나 해외로 갈 예정이기에 해외로 나가겠다는 헤론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결국 헤론은 지금은 해외 선교사로 나갈 수 없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즉시 지원서를 보내겠다고 엘린우드에게 약속했다.

이러는 중 5월 23일 뉴욕 주 새러토가(Saratoga, N. Y.)에서 열린 미국 북장로회 총회에 참석한 메리빌대학의 라마 교수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밀스(Frank V. Mills)가 한국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강연을 들었고, 바로 그런 사역에 적합한 젊은이로 헤론을 추천한 바 있었다.³⁹⁾

이와 같이 1883년 5월의 헤론의 선교사 자원은 자신의 확고하지 못한 태도와 가정 사정 때문에 싱겁게 철회되었고, 엘린우드가 헤론을 불신하게 된 단초를 제공하였다.

37) 엘린우드의 이러한 요청은 미국 북장로회의 매뉴얼에 규정된 바에 따른 것이다. 즉 선교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지원자의 연령, 건강, 언어 습득력, 배우자 동반 여부, 선호 지역, 종교적 체험, 해외 선교사가 되려는 동기 등을 언급한 지원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한 의료 선교사의 경우에는 그의 전문 지식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했다. Frank F. Ellinwood, Letter to John W. Heron(Jonesboro, Tenn.) (June 30th, 1883). PHS RG 31 44-13, #201; *A Manual for the Use of Missionary Candidates and Missionaries in Connection with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Fourth Edition*(New York: Mission House, 23 Centre Street, 1882).

38) John W. Heron(Jonesboro, Tenn.), Letter to Frank F. Ellinwood(Sept. 17th, 1883). PHS RG 31 43-13, #51~2.

39) T. J. Lamar(Maryville, Tenn.),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July 5th, 1884). PHS RG 31 43-13, #77~8.

2. 헌터와 리드의 한국행 지원⁴⁰⁾

헤론이 선교사로 지원할 즈음, 일본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녹스(George W. Knox, 1853~1912)는 이수정에게 세례를 준 사실을 선교본부에 보고하였다.⁴¹⁾ 이에 엘린우드는 한국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 일본의 녹스와 중국 산둥의 네비우스에게 현지 선교사들의 의견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⁴²⁾ 일본에서는 여러 이유로 한국 선교의 시작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에서는 한 동안 이에 대한 의견이 없다가, 1883년 12월 14일 열린 산둥 및 베이징선교부의 정례 회의에서 알렌의 전임자인 의사 헌터(Stephen A. Hunter)와 리드(Gilbert Reid, 1857~1927)가 한국행을 지원했다. 그들은 다른 동료들이 자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12월 15일 선교본부에 자신들을 한국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⁴³⁾ 이에 대해 해외선교본부의 실행위원회는 1884년 2월 25일 열린 회의에서 헌터와 리드의 한국행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⁴⁴⁾

3. 맥윌리엄스의 기부와 헤론의 선교사 임명

헌터와 리드가 한국행을 요청하기 직전인 1883년 12월 13일, 이수정은 한국 선교와 관련하여 일본인들이 나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미국의 교회로 편지를 보내 한국에 선교사들을 직접 파송해

40) 이선호·박형우, “19세기말 미국 북 장로회의 한국 선교 추진 과정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 제157집(2012년 3월), 277-323.

41) “Rijutei the Corean,” *Foreign Missionary* 17(9)(1883), 148.

42) Frank F. Ellinwood, Letter to John L. Nevius(May 21st, 1883). PHS China V67-83, #23; Frank F. Ellinwood, Letter to George W. Knox(May 21st, 1883). PHS China V67-83, #24.

43) Stephen A. Hunter, Letter to Frank F. Ellinwood(Dec. 15th, 1883). PHS China V17-83, #173; Gilbert Reid, Letter to Frank F. Ellinwood(Dec. 15th, 1883). PHS China V17-83, #174.

44) Minutes V. 4~5, #283(Feb. 25th, 1884).

줄 것을 요청하였다.⁴⁵⁾

이수정의 이러한 요청은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평신도로서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의 실행위원이던 맥윌리엄스(David W. McWilliams)는 ‘한국 선교 개시를 두고 아직 시기상조’라는 미국 회중교회 외국선교본부(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의 잡지 기사를 읽은 후, 엘린우드에게 이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엘린우드는 즉시 한국 선교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5천 달러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⁴⁶⁾ 이에 맥윌리엄스는 1884년 2월 8일자로 한국 선교의 시작을 위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마퀀드(Frederick Marquand)의 유산 중에서 5천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⁴⁷⁾ 이 5천 달러는 선교사 2명의 2년 치 연봉이었으며, 1년에 2번씩 2년에 걸쳐 선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는 책임자를 물색하면서 이전에 의료 선교사로 자원한 바 있었던 헤론과 연락을 취했다. 이에 헤론은 1884년 3월 15일자로 다음과 같은 선교사로 정식 지원하는 편지를 보냈다.

아마 박사님은 지난 여름 해외선교부로 제 자신을 의료 선교사로 지원 하는 혹은 오히려 신청하는 편지를 받고, 당시에는 북장로회의 어느 선교 지부에서도 의사를 요청한 곳이 없다는 답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겠지요. 후에 박사님은 공식적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당시 저는

45) Rijutei, “Rijutei to the christian of America. Greeting,” *Missionary Review of the Word* 7(1884), 145-146.

46) George S. McCune, “Fifty Years of Promotion by the Home Board and Home Church”(Rec’d Oct. 1, 1934). PHS RG 140 1-20.

47) 마퀀드(Frederick Marquand)는 1840년대 초부터 뉴욕의 유명한 보석상이었으며, Ball, Black & Co.를 설립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그는 1882년 7월 사망하면서 100만 달러 이상의 유산을 남겼다. 부인이 먼저 죽고 자식이 없었던 그는 일부 재산을 친척들에서 배분해주고, 자신이 사망한 지 3년 이내에 이자 없이 수많은 기독교 관련 및 기타 단체에 돈을 기부하도록 했다. 이중 5천 달러가 해외 선교를 위해 할당되었다.

“Frederick Marquand’s Will,” *The New York Times*(September 23, 1882); Daniel W. McWilliams(New York), Letter to Frank F. Ellinwood(Feb. 8th, 1884). PHS VI-84, #1.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⁴⁸⁾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일이 해결되어 의료 선교사로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바입니다. 저의 이 결심은 성급히 혹은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라 거듭 심사숙고하고 기도한 끝에 신중하게 얻은 결론입니다.⁴⁹⁾

이와 함께 3월 14일 작성된 존스보로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 덩컨의 추천서, 그리고 동업자 집슨 및 존스보로의 또 다른 의사 테더릭(E. L. Deaderick)이 공동으로 작성한 신체검사 소견서, 그리고 자신의 금메달 수상 소식이 담긴 의학부 일람의 스크랩이 해외선교본부로 보내졌다.⁵⁰⁾

헤론의 자원 편지를 받은 엘린우드는 “일본에 체류 중인 김옥균이 기독교 전도를 원하고, 아마도 한국 정부가 서양식 병원을 설립하고 싶어 할 것이며, 선교사 파송을 위한 예산 5천 달러는 이미 확보되어 있음”을 헤론에게 알려주었다.⁵¹⁾ 이에 헤론은 한국에 대해 정보를 모아 판단한 결과, 비록 힘든 일이 되겠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말씀처럼 “내가 가야한다면 기꺼이 가겠노라”고 회신하였다.⁵²⁾

헤론의 선교사 임명 및 임지는 1884년 4월 28일의 해외선교본부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엘린우드가 헤론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오늘 아침 선교본부 회의에서, 현재로서는 일본으로 가서 한국어를 배

48) Frank F. Ellinwood, Letter to John W. Heron(Jonesboro, Tenn.) (June 30th, 1883). PHS RG 31 44-13, #201.

49) John W. Heron(Jonesboro, Tenn.), Letter to Frank F. Ellinwood(Mar. 15th, 1884). PHS RG 31 43-13, #53~4.

50) C. A. Duncan(Jonesboro, Tennessee), Letter to Frank F. Ellinwood(Mar. 14th, 1884). PHS RG 31 43-13, #73~74; D. J. Gibson, E. L. Deaderick(Jonesboro, Tenn.), Letter to Frank F. Ellinwood(Mar. 15th, 1884). PHS RG 31 43-13, #75.

51) Frank F. Ellinwood, Letter to John W. Heron(Jonesboro, Tenn.) (Mar. 22nd, 1884). PHS RG 31 44-13, #270.

52) John W. Heron (Jonesboro, Tenn.), Letter to Frank F. Ellinwood(Apr. 4th, 1884). PHS RG 31 43-13, #55~6.

우고, 아직 열리지 않은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조건으로, 귀하가 만장일치로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귀하가) 선교지로 들어갈 때가 되면 동행할 (목회) 선교사가 임명되겠지요. 나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일본에서 훌륭한 한국어 교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⁵³⁾

이와 같이 헤론은 미국 북장로회, 아니 개신교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았다. 엘린우드는 헌터와 리드가 속해 있는 중국 산둥 및 북경지부로 편지를 보내 동 테네시의 젊은 의사가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음을 알리고, 가을 쯤 일본으로 건너가 한국어를 배우다가 기회가 되면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⁵⁴⁾

4. 뉴욕 의학대학원 연수

그런데 엘린우드가 헤론을 또 다시 불신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헤론이 존스보로를 떠나 녹스빌의 집을 방문하는 사이에 자신의 한국 선교사 임명을 알리는 편지가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헤론의 잘못은 아니었다. 하지만 헤론의 답장이 없자, 엘린우드는 5월 7일 다시 편지를 보내 혹시 마음이 변했으면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니 꼭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⁵⁵⁾

이후 헤론의 파송 과정에는 그의 꼼꼼한 성격에다 알렌의 한국 파

53) “헤론의 선교사 자원 편지와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 사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4월 4일자 추가 편지도 제출되었다. 헤론을 추천하는 3월 15일자 김슨과 데더릭의 편지, 3월 14일자 덩컨 목사의 편지가 제출되었다. 그 결과 헤론은 궁극적으로 한국에 파송할 예정으로 선교본부의 선교사로 임명하며, 현재로서는 일본으로 가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문이 열리자마자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의결되었다.”

J. W. Heron - Application & Appointment to Corea, *Missionary*(Apr. 28th, 1884). Minutes V.4~5, #297~8; Frank F. Ellinwood, Letter to John W. Heron (Jonesboro, Tenn.) (Apr. 28th, 1884). PHS RG 31 44-13, #276.

54) Frank F. Ellinwood, Letter to the Shantung and Peking Station(May 2nd, 1884).

55) Frank F. Ellinwood, Letter to John W. Heron(Jonesboro, Tenn.) (May 7th, 1884). PHS RG 31 44-13, #278.

송이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한국 선교사로 임명된 헤론은 자신이 과연 한국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할 수 있을까 하는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⁵⁶⁾ 그리하여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지만 몇 개월 동안 큰 병원에서 훈련을 쌓고 가을쯤 떠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엘린우드에게 보내며, 자신이 혼자 가는 것인지 목회 선교사가 동반하는지 궁금해 했다. 그러면서 결혼은 언제 해야 하는지, 병원은 언제 열 수 있는지 등의 많은 질문과 함께 새로운 선교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하였다.⁵⁷⁾ 여기에서 7월 4일에는 동업자 김슨 의사가 헤론이 자신의 딸 해티(Harriet E. Gibson, 1860~1908)에게 청혼을 하면서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런 때에 젊은 여자가 가기에 한국이 안전하고 적절한지, 그리고 의료 선교사의 부인으로서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 보기도 했다.⁵⁸⁾

미국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에 있어 1884년 6~7월은 무척이나 분주한 달이었다. 우선 아내의 건강 악화 등으로 중국에 정착하지 못하던 알렌이 6월 9일자로 자신을 한국으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⁵⁹⁾ 이러한 요청을 엘린우드가 언제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6월 15일 헤론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 파송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 7월 3일 선교본부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⁶⁰⁾

7월 3일 헤론이 엘린우드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7월 5일 메리빌대학의 크로퍼드(G. S. W. Crawford) 교수, 라마 교수, 7월 9일 테네시대학교 의학부의 빙(W. G. Bibb) 교수, 7월 11일 이브(Duncan Eve) 학장의 추천서가 선교본부로 보내졌다.⁶¹⁾

56) John W. Heron(Jonesboro, Tenn.), Frank F. Ellinwood(May 10th, 1884). PHS RG 31 43-13, #57.

57) John W. Heron(Jonesboro, Tenn.), Frank F. Ellinwood(June 9th, 1884). PHS RG 31 43-13, #58-9.

58) D. J. Gibson(Jonesboro, Tenn.), Letter to Frank F. Ellinwood(July 4th, 1884). PHS RG 31 43-13, #60-1.

59) Horace N. Allen(Shanghai), Letter to Frank F. Ellinwood(June 9th, 1884).

60) Frank F. Ellinwood, Letter to John W. Heron(Jonesboro, Tenn.) (June 15th, 1884). PHS RG 31 44-13, #292.

61) G. S. W. Crawford(Maryville College),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이미 선교사로 임명된 헤론에 대한 추천서가 다시 보내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와 함께 7월 21일 헤론은, 바트렛 학장의 편지에 의하면 선교본부가 자신의 파송을 이듬해 봄으로 연기한 것 같으며, 그 진위 여부를 문의하였다. 그리고 어쨌건 내년 봄까지는 임지가 결정될 것으로 믿으며, 그동안 뉴욕 의학대학원에서 좀 더 연수를 쌓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선교본부의 총무 미첼(Arthur Mitchell)은 7월 23일자로 헤론에게 편지를 보내, 최근 한국행을 요청했던 중국의 알렌을 선교부가 한국으로 들어가도록 조치했다며 헤론의 뉴욕 의과대학원 연수를 허락했다.

중국에 있는 의료 선교사의 한 명인 알렌이 공사관과 세관의 의사로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의 조언에 따라 선교본부는 그가 즉시 한국으로 들어가도록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는 공사관에서 일을 하지만 선교사의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첫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의사를 내년 봄에 한국으로 파송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알렌은 분명 병원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여러 공사관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사로서도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교본부가 신경을 써야 하는 유일한 선교지가 아니며, 당신이 관심을 갖는 유일한 선교지가 아닐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⁶²⁾

7월 14일에는 한국 선교에 나서기로 결심을 굳힌 뉴저지의 언더우드 목회 선교사로 지원하였다. 그는 이수정의 호소를 읽고 감명을 받아 자신이 소속된 화란개척교회에 한국으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July 5th, 1884). PHS RG 31 43-13, #76; T. J. Lamar (Maryville, Tenn.),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July 5th, 1884). PHS RG 31 43-13, #77~8; W. G. Bibb(Nashville, Tenn.),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July 9th, 1884). PHS RG 31 43-13, #80; Duncan Eve(Nashville Medical College),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July 11th, 1884). PHS RG 31 43-13, #79.

62) Arthur Mitchell, Letter to John W. Heron(Jonesboro, Tenn.) (July 23rd, 1884). PHS RG 31 44-13, #314~5.

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을 듣고 고민하던 중, 북장로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될 목회 선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⁶³⁾ 언더우드는 7월 28일 선교사로 임명됨과 동시에 한국이 임지로 결정되었다.⁶⁴⁾

헤론은 선교본부의 결정에 따라 9월 16일부터 뉴욕 의학대학원에서 연수를 받기 시작하였다. 뉴욕 생활은 헤론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우선, 대학원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우수한 성적을 받고 졸업하였고, 1885년 1월 말부터 100병상 규모의 블랙웰 아일랜드 암스하우스 병원(Almshouse Hospital)에서 부의사(associate physician)로서 경험을 쌓게 된 일이다. 헤론은 의술이 더욱 정교해졌음은 물론, 이즈음 테네시대학교 의학부 교수로 초빙을 받았다. 하지만 헤론은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위해 이를 사양하였다.

두 번째로, 헤론은 YMCA 모임에 적극 참여했고, 그곳 의과대학생들에게 의료 선교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헤론이 한국을 향한 준비를 위해 테네시로 돌아가기 직전 뉴욕 YMCA에서는 그와 중국으로 파송되는 스완을 위해 환송식을 해 주었다.⁶⁵⁾ 이날 헤론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친구 동료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가려는 곳에서 필시 다른 의사들과 단절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어려운 환자들을 접하고 치료하겠지만, 다른 동료 의사들의 자문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뼈대를 알고 계시는 위대한 의사의 자문을 항상 받을 것입니다.⁶⁶⁾

63) Horace G. Underwood (New Durham, N. J.), Letter to Frank F. Ellinwood(July 10th, 1884). PHS RG 31 37-10, #490~1.

64) PHS Minutes V.4~5, #324 H. G. Underwood - Appointment Confirmed & Assigned to Corea(July 28th, 1884).

65) 스완(John Myers Swan)은 1885년부터 1919년까지 중국에서 전도 및 의료 사역에 참여했다.

66) "John William Heron, M. D.," *The Medical Missionary Record* 5(1890), 224-226.

5. 해리엇과의 결혼과 한국행

헤론이 뉴욕 의학대학원 과정을 끝내고 블랙웰 아일랜드 암스하우스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1885년 1월 26일,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는 헤론과 결혼할 해리엇을 한국 선교사로 임명했으며, 2월 2일 헤론의 한국행을 결정했다.⁶⁷⁾ 헤론은 3월 초까지 병원 일을 끝낸 후 한국행을 위해 테네시로 돌아갔다.

아버지 에버니저는 4월 21일 헤론에게 한 권의 책을 선물했는데,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떠나는 John William Heron에게,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 E. S. Heron으로부터, 1885년 4월 21일”이라고 쓰면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기록해 주었다고 한다.⁶⁸⁾

4월 23일 헤론은 존스보로 장로교회에서 해리엇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버지 에버니저가 덩컨 목사의 도움을 받으며 예식을 집전했다. 헤론과 결혼한 해리엇의 부친은 헤론과 같이 동업을 하던 데이비드 김슨이었다.⁶⁹⁾ 그는 테네시 주 워싱턴카운티의 존스보로에서 출생했으며, 1851년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존스보로로 돌아와 사

67) PHS Minutes V.4~5, #378 Miss H. Gibson(Dr. Heron) - Appointed to Corea, (Jan. 26th, 1885); Frank F. Ellinwood, Letter to John W. Heron(New York) (Jan. 31st, 1885). PHS RG 31 44-13, #355.

68) ¹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²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찌니라 ³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마르다 헛트리 지음, 차중순 옮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울: 쿤란출판사, 2009), 140.

69) 데이비드는 부모로부터 특별한 유산을 받은 것이 없어 청소년기에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의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16세부터 공부에 전념하였다. 1840년부터 3년 동안 워싱턴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데이비드는 대학 선배로 존스보로에서 개업하고 있던 커닝햄으로부터 3년 동안, 때로 왕진도 가고 수많은 외과 수술에서 조수의 역할을 하면서 의학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커닝햄이 졸업한 트란실바니아대학교에서 1847년 1년 동안 의학 과정을 이수한 후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에서 3년 동안 개업을 했다. 이후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에서 1년 동안 강의를 이수하여 1851년 졸업하였다.

망할 때까지 의사로 활동했다. 그는 감돈 허니아(*incarcerated hernia*), 사지 절단 등 범위가 넓고 힘든 수술을 잘 하는 의사로 명성을 얻었으며, 워싱턴카운티 의사회 회장, 미국의사협회 연금위원회 심사위원장으로 등으로 활동했던 저명한 의사였다. 그는 30세가 되었을 때 장로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장로로 활동했다. 의사로서 부를 쌓은 그는 약국과 함께 존스보로에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였다. 데이비드는 1859년 6월 23일 뉴햄프셔 출생의 새러(*Sarah A. Kelly, 1832~1919*)와 재혼하였다.⁷⁰⁾ 새러는 매사추세츠 주의 명문 여학교인 마운트 홀리요크 여자 신학원(*Mount Holyoke*)을 졸업한 재원으로 교회 활동에 열심이었다.

헤론의 아내 해리엇은 데이비드와 새러의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는 14살이 되던 1874년부터 교회에 다녔고, 1877년 매사추세츠 주 앤도버(*Andover, Mass.*)의 애벗학교에 입학하여 4년 동안 수학한 후 1881년 졸업하였다. 이후 해리엇은 작은 학교에서 1년 반 동안 교사로 활동했고, 이어 공립학교의 고학년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다.

결혼식 다음날 헤론 부부는 녹스빌 제2장로교회에서 열린 여성장로회 선교사 모임에 참석하여 환송식을 받았다. 그리고 1주일 후에는 존스보로에서 열린 환송식에 참석한 후 1885년 5월 1일 한국을 향해 녹스빌을 떠났다. 그들은 5월 9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일본에 잠시 체류한 후, 감리회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세리오 마루(*Tserio Manu*) 호를 타고 나가사키 항을 떠나 6월 20일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이상과 같이 헤론은 엘린우드가 처음 언급한 1884년 가을이 아닌, 임명된 지 1년이 넘어서야 한국에 입국하였다.

70) 데이비드는 1850년 11월 5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생한 해리엇(*Harriet E. Johnson, 1831~1852*)과 결혼했으나 1852년 그녀가 사망했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V. 맺음말

맺음말에서는 우선 여러 자료에 나타난 헤론의 외모와 성품을 살펴보고, 다양한 1차 사료를 이용하여 본문에서 살펴본 집안 배경, 교육 배경, 그리고 선교사 임명 과정에서 중요한 점을 요약하기로 한다.

헤론의 외모는 기포드가 가장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맥콘넬(T. H. McConnell)도 짧게 언급하였다.⁷¹⁾ 헤론은 중간 정도의 키에, 균형적인 몸매를 가졌다.⁷²⁾ 미남형의 얼굴에다 이마는 높고 큰 눈은 지적이고 빛났으며, 긴 눈썹은 얼굴을 감수성이 강하며, 눈매가 매섭고 순진하게 보이게 하였다. 입은 아래로 처진 수북한 콧수염으로 덮여 있으며, 윗입술은 농담을 할 때 특징적으로 떨렸다. 그의 전체적인 태도는 위엄 있고 품위가 있었으며, 깔끔하고 성실했다.

그의 성격은 특징적으로 친절한 기사도 정신으로 친구들에 대해 사심이 없이 대했으며, 그와 만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마치 형제처럼 느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생각이 빠르고, 관찰력이 예리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솔직했으며, 상대의 결점도 주저 없이 지적하는 등 직설적이었다. 더구나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구들을 대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이로 미루어 헤론의 성격은 혈액형의 특징에 따라 비유한다면, A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헤론은 부모가 독실한 신앙을 가진 집안이었다. 목사인 에버니저는 자식들이 모두 유아세례를 받게 했으며, 막내아들은 대를 이어 목사

71) Daniel L. Gifford, "John W. Heron, M. D.," *The Korean Repository* 4(1897), 441-443; T. H. McConnell, "John W. Heron, M. D., Missionary," *Maryville College Monthly* 2(6)(March 1900), 100.

72) 선교사 임명 당시 헤론의 키는 5피트 9인치, 체중은 157파운드였다. D. I. Gibson, E. L. Deaderick(Jonesboro, Tennessee), Letter to Frank F. Ellinwood(Mar. 15th, 1884). PHS RG 31 43-13, #75.

로 활동했다. 부친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 목사가 되었지만 각종 활동,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주저 없이 행했던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러한 곧은 자세는 빙리에서 회중들과 갈등을 빚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결국 퇴출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신도들의 성금으로 미국 테네시 주의 녹스빌로 이민을 떠났다. 자신을 거부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영국에서 교육 활동에 적극 나섰던 에버니저는 메리빌대학의 이사를 지내는 등 미국에서도 교육에 큰 관심을 나타내었다.

헤론이 테네시대학교 의학부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부친의 지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기독교 사역에 몰두해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부친뿐만 아니라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⁷³⁾ 이와 함께 에버니저는 화목한 가정을 꾸미려 상당히 노력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헤론이 처음 선교사를 지원한 후 자신과 상의했을 때 여동생이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며 결국 헤론이 선교사 지원을 철회케 한 것을 들 수 있다.

테네시대학교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헤론은 존스보로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존스보로는 헤론에게 중요한 곳이었다.

첫째, 헤론이 의료 선교사로 자원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리아 부인과의 만남이었다. 의료 선교사에 대한 요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헤론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리아와 함께 대학 YMCA의 총무인 위샤드도 헤론이 의료 선교사로 나서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그곳에서 동업을 했던 김슨의 딸 해리엇과의 만남이다. 헤론은 그녀에서 청혼을 하면서 선교사로서 한국으로 가자고 요청하였다. 해리엇은 헤론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으며, 자신도 여성들을 상대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였고, 헤론이 사망한 이후 계일과 재혼을 했고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1908년 소천하였다.

헤론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에는 장인과 장모의 선교에 대한 이해

73) "John William Heron, M. D.," *The Medical Missionary Record* 5(1890), 227.

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알렌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헤론이 제중원의 책임을 맡으며 힘에 겨워했을 때 장인과 장모는 자신들을 한국으로 파송해 줄 것을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훌륭한 의사로서 선교 사역을 이해하는 배우자를 만난 헤론의 선교사 임명은 순조롭지가 않았다. 우선 1883년 5월 2일의 헤론의 선교사 자원은 싱겁게 철회되었고, 엘린우드가 헤론을 불신하게 된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후 중국에서 활동하는 헌터와 리드가 한국행을 자원했지만 해외선교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침 이수정이 미국 교회가 직접 선교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맥윌리엄스가 한국 선교 개시를 위해 5천 달러를 기부하면서 적임자를 찾는 중에 1884년 4월 28일 헤론이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선교사 임명을 알리는 편지를 헤론이 받지 못했고, 이후 헤론의 파송 과정에는 그의 꼼꼼한 성격에다 알렌의 한국 파송이 큰 영향을 미쳤다. 보다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떠나겠다는 헤론의 요청은 선교본부가 알렌을 한국으로 파송했다고 헤론에게 통지하면서 승낙하였다.

헤론은 9월부터 뉴욕 의학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고, 우수한 성적을 받아 1885년 1월 말부터 100명상의 블랙웰 아일랜드 암스하우스 병원에서 부의사로 경험을 쌓았다. 이즈음 헤론은 테네시 대학교 의대 교수로 초빙을 받았다. 하지만 헤론은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위해 이를 사양하였다. 뉴욕에서 YMCA의 일원으로 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던 헤론은 2월 2일 한국행이 결정되었다. 헤론은 4월 23일 해리엇과 결혼하였고, 5월 9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일본에 잠시 체류한 후, 6월 20일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선교사로 임명된 지 1년이 넘어 선교지에 도착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저자는 다양한 1차 사료를 이용하여 헤론의 가정, 교육 환경 및 선교사로 임명되는 과정을 나름대로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며, 다른 연구자들의 추후 연구에 의해 한국 기독교 도입사에서 헤론이 갖는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 김동건·김태수, “제중원 2대 원장 헤론(John W. Heron, M. D.)의 생애,” 『의사학』 9(2000), 205-211.
- 박형우, “알렌의 의료 선교사 지원과 내한 배경,”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40호(2014. 3), 193-220.
- 이선호·박형우, “19세기말 미국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 추진 과정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 제157집(2012. 3), 277-323.
- 헤론, 김인수 옮김, 『헤론 의사의 선교 편지(1885~1890)』(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한국교회사연구원, 2007).
- Announcement of the Spring and Special Course of Instruction 1881, of the Medical Department University of Tennessee, Nashville Medical College.*
- Catalogue of the Officers And Students of Maryville College, East Tennessee, For the Academic Year 1873~1874(Knoxville, Tenn.: O. B. Smith & Co., Booksellers And Publishers, 1874).*
- Daniel L. Gifford, “John W. Heron, M. D.,” *The Korean Repository* 4(1897), 441-443.
- Frank F. Ellinwood, Letter to John W. Heron(Jonesboro, Tenn.) (Apr. 28th, 1884). PHS RG 31 44-13, #276.
- “John William Heron, M. D.,” *The Medical Missionary Record* 5(1890), 224-226.
- T. H. McConnell, “John W. Herron, M. D., Missionary,” *Maryville College Monthly* 2(6)(March 1900), 100-102.

투고·접수일 : 2015.1.5 심사 완료일 : 2015.1.29 게재 확정일 : 2015.2.10

한글 초록

이 논문은 그 동안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일차 사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임명되었던 헤론의 집안 배경 및 내한 과정을 밝힌 것이다.

헤론은 부모가 독실한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부친은

영국 회중교회 목사 출신으로, 미국 장로교회 목사였다. 헤론은 모든 일에 꼼꼼하고 모범생 타입이었지만, 집념이 강하고 너무 작은 일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불편한 일을 쉽게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꼭 참고 지내는 경향도 나타내었다.

헤론은 메리빌대학을 중퇴하고 의과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가 테네시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하였다. 1883년 수석으로 졸업한 헤론이 개업을 했던 존스보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헤론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첫째, 헤론이 의료 선교사로 자원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리아 부인과의 만남이었다.

둘째, 그곳에서 동업을 했던 김슨의 딸 해리엇과의 만남이다.

훌륭한 의사로서 선교 사역을 이해하는 배우자를 만난 헤론의 선교사 임명은 순조롭지가 않았다. 우선 1883년 5월 2일자 헤론의 선교사 자원은 싱겁게 철회되었고, 엘린우드가 헤론을 불신하게 된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후 한국 선교 개시와 관련된 이수정의 편지, 맥윌리엄스에 의한 5천 달러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1884년 4월 28일 헤론이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중국에 파송되었던 알렌이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고, 헤론은 9월부터 뉴욕 의학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그리고 1885년 2월 2일 한국행이 결정되자, 헤론은 4월 23일 해리엇과 결혼하였고, 5월 9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일본에 잠시 체류한 후, 6월 20일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선교사로 임명된 지 1년이 넘어 선교지에 도착한 것이었다.

주제어: 한국 개신교 도입, 존 더블류 헤론, 에버니저 에스 헤론, 해리엇 이 김슨 (헤론), 호러스 엔 알렌, 미국 북장로회 한국 선교부

Abstract

The Study on the Process of Dr. John W. Heron's Coming to Korea as a Medical Missionary

Park Hyung-Woo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amilial backgrounds and process of Dr. John W.

Heron's coming to Korea by careful analysis of primary data scarcely used in the previous studies.

Dr. Heron was the eldest son in a devoted Christian family. His father was a pastor of an English Congregational Church, and a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of the time. Dr. Heron was a meticulous person with strong devotion and sometimes would show a tendency to focus on too much details and had hard time letting go of past events.

Dr. Heron left the Maryville College halfway, and worked as a teacher for 5 years to save funds for entering Medical College. He entered the Medical Department of Tennessee University in 1881, and graduated with honours in 1883. He opened a clinic at Jonesboro, Tennessee, where gave special meanings to his life.

Dr. Heron met Mrs. Rhea in Jonesboro, who influenced him the most becoming a medical missionary, and also Miss Harriett E. Gibson, the daughter of his partner Dr. Gibson. Harriett had a good understanding on the importance of missionary duty.

The appointment of Dr. Heron as a missionary by Presbyterian Church, U. S. A. went not smoothly. Dr. Heron expressed his intention for a foreign missionary in the letter of May 2, 1883. But it was easily withdrawn by himself, and gave Dr. Frank F. Ellinwood, the Secretary, a reason to distrust Dr. Heron.

Mr. Rijutei, the first Korean who baptized in Japan, sent an appeal to the American Church asking the starting of missionary work by American in Dec. 1883. This letter moved the mind of Mr. David W. McWilliams, who executed a will of Late Frederick Marquand, to donate \$5,000 for the opening of Korea as a new mission field. This event facilitated the appointment of Dr. Heron as a first medical missionary to Korea on April 28, 1884.

However, Dr. Horace N. Allen, who was dispatched to China in October 1883, was transferred to Korea in September 1884.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provided Dr. Heron took the course at New York Postgraduate Medical School from September 1884. Dr. Heron finished the course with excellent scores, and took a position of Associate Physician of Almshouse Hospital of Blackwell Island, New York.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decided to send Dr. Heron to Korea on February 2, 1885. After finishing the work at Almshouse Hospital, Dr. Heron married to Miss Harriet E. Gibson on April 23, and arrived at his mission field, Chemulpho, on the 20th of June.

Key-Words: Introduction of Protestantism in Korea, John W. Heron, Ebenezer S. Heron, Harriett E. Gibson(Heron), Horace N. Allen,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 C I